

“토종닭 달걀 시장 연다”...농촌진흥청-한국토종닭협회 업무협약

- 4월 29일,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업무협약 체결
- 종자 개발부터 현장 보급까지 협력 체계 구축
- 양측, 기술·종자 지원과 농가 조직화·유통 확대 협력하기로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축산과학원은 4월 29일 본원에서 (사)한국토종닭협회(협회장 문정진)와 산란용 토종닭 개발과 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고기용 닭 생산에 치우쳤던 토종닭 산업 기반을 산란용까지 넓혀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농가 소득원을 다양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연구개발부터 생산·유통·소비 확대에 이르는 전 과정에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산란용 토종닭 종자 개발과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토종닭 능력을 개량하고 맞춤형 사양관리 기술을 개발해 품질 차별화 연구를 수행한다. 거점 종계장과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실증 연구와 기술 자문도 지원할 예정이다.

(사)한국토종닭협회는 산란용 토종닭 보급을 위한 거점 종계장 선정과 운영 관리에 협력한다. 또한, 생산 농가를 조직화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토종닭 달걀 소비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유통망 확보와 상표화(브랜드화)에도 힘을 보탠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오는 5월에 토종닭 달걀 사업화 모형과 중장기 연구개

발후사업화(R&BD)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7월에는 산란용 토종닭 시범 보급을 위한 거점 종계장 확보 실무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협회장은 “이번 협약은 토종닭 달걀 시장을 여는 출발점이다.”라며 “농가에는 새로운 고부가가치 소득원이 되고, 소비자에게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역량을 모으겠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조용민 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연구기관 기술력과 산업 현장 실행력을 통합해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라며 “우수한 산란용 토종닭을 안정적으로 보급하고, 농가 소득 향상과 토종닭 산업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현장 중심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국립축산과학원-(사)한국토종닭협회 업무협약 계획(안)

담당 부서	국립축산과학원 가금연구센터	책임자	센터장	김경운 (033-330-9510)
		담당자	연구사	추효준 (033-330-9540)
				

□ 추진 배경 및 목적

- (산업구조 다양화) 토종닭 달걀 이용 틈새시장 확대 및 산업 생태계 확장
- (보급 기반 강화) 원천 기술(종자·사양)과 협회의 현장 조직력을 결합
- (성공 모형 확산) 경북 영양군 등 지자체 협력 모형 실현 및 확산

□ (사)한국토종닭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계획

- 일시: 2026. 4. 29., 14:00~14:30
- 장소: 국립축산과학원 본원(전주) 5층 강당
- 협약기관: 국립축산과학원, (사)한국토종닭협회
 - 협약대표 : 국립축산과학원장, (사)한국토종닭협회장
- 협약 기간 : 2026. 4. ~ 2029. 4.(협약일로부터 3년)
- 주요 협약 내용
 - 산란용 토종닭 보급 거점 구축, 사양 기술 표준화 및 산업화 전략 수립

협약기관	주요 내용
(사)한국토종닭협회 조직·유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점 종계장 확보를 통한 종계 공급능력 확충 및 농가 조직화 ▪ 토종닭 브랜드 개발 및 유통망 확보 지원
국립축산과학원 (가금연구센터) 기술·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란용 토종닭 종자(원종계, 종계)의 공급 및 기술지원 ▪ 맞춤형 사양관리 지침 개발 및 산업화 전략 수립

□ 금후 계획

- 토종닭 달걀 사업화 모형 및 중장기 연구개발후사업화(R&BD) 전략 수립(5월)
 - * 연구용역: 산란용 토종닭 개발·보급 확산을 위한 중장기 연구개발후사업화(R&BD) 전략 수립
- 산란용 토종닭 시범 보급을 위한 거점 종계장 확보 실무협의 추진(7월)